

제433주년 충장공 권율장군 이치대첩 기념제 성황리 거행



제433주년 충장공 권율장군 이치대첩 기념제가 8월 28일 금산군 진산면 충장사와 진산면 행복누리센터 일원에서 내외 귀빈과 지역주민, 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승리의 고개, 이치에서 미래로’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거행되었다.

박범인 금산군수, 김기윤 금산군의회의장, 이인원 금산교육지원청장, 노경수 금산경찰서장, 권점수 칠백의총관리소장, 송영천 의원, 정기수 의원, 박성현 사회단체연합회 회장, 이장협의회 회장, 최명철 노인회 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안동권씨 대종회에서는 버스 1대를 대절하여 참석하였다. 안동권문에서는 권오돈 추밀공파총회 회장, 권영복 서울지역총친회장, 권행완 사무총장 직무대리 겸 편집국장, 권경일 추밀공파총회 사무처장, 권기준 문경공 종손, 권동원 참의공종중 이사장, 권충원 참의공종중대의원대회 의장, 권인순 탄옹공 이사장, 권태환 순천종친회장 과 회원 30명, 권봉철 전주완주종친회 부회장 등 15명, 권태수 문경공종중 회장, 권오섭 문충공 사무국장, 권성기 전 금산종친회장 등 8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기념제가 예전과 다른 점은 그동안 금산문화원에서 주관하던 사업을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순수 민간단체인 진산역사문화 연구회에서 주관했다는 점이다. 기념제는 제1부 이치대첩승전기록 낭독, 기념사 및 축사, 한화송 공연, 한화분향, 시상식, 배꽃합창단 공연, 제2부 금산우리춤 공연, 연극 ‘월류피도전곡’, 먹거리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등. 특히 지난 6월에 금산지역 초·중고 학생을



리 어린이들이 역사 앞에 나라사랑 마음 전해주었다. 너무 자랑스럽고 고맙다. 그래서 국가사적지로 정해야 한다. 금산군과 완주군 실무자끼리 협의하고 있다. 두 기관이 협의하여 추진 여건을 조성하여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대첩비각에는 비석이 두 개가 나란히 서 있다. 그중 하나는 1940년도에 일제 경찰서장이 처참하게 폭파시켰다. 이 자리는 승전의 현장이면서 국가가 힘이 없을 때 어떻게 치욕을 당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현장이기도 하다. 선열들의 호국의 정신을 이어받아 아름답고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이 시대의 책무이다. 권율장군 후손인 안동 권씨에 감사드리다고 말했다.

강연한 진산역사문화연구회 회장은 이치 고개는 호남으로 가는 전략상 중요한 위치이다. 1만여 명의 왜군이 금산까지 연전연승하면서 전주로 향할 때 광주목사인 권율장군이 “오늘 이 싸움은 진적만 있을 뿐 후퇴

는 없고, 죽음만 있을 뿐 삶은 없다”고 장검을 뽑아 들고 독려했다. 이에 군사들은 사기가 충천하여 왜군을 물리쳤다. 이런 선조들의 혼과 정신이 깃든 이치대첩지를 국가사적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오돈 추밀공파 회장은 이치전투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나라 지키는 정신을 깊이 연구하고 앞으로 연구회가 크게 발전하기를 바란다. 진산면민과 금산군민이 나날이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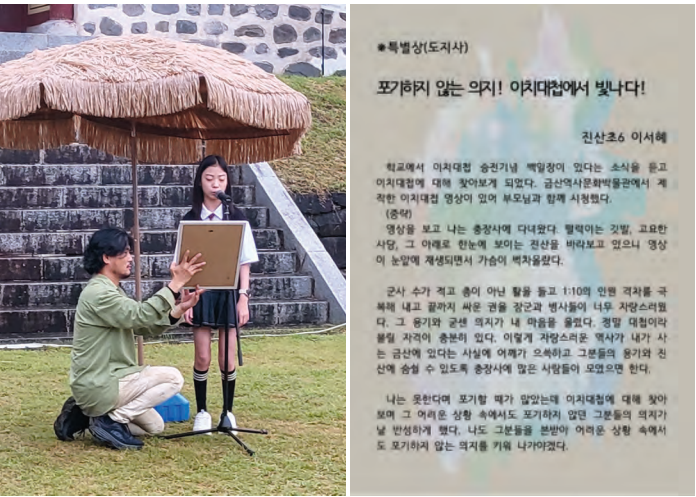
시상식에서는 지난 6월 개최한 백일장과 사생대회에서 수상의 영예를 차지한 학생들에게 상장과 함께 부상을 전달했다.

이어서 김수아 학생의 한화송은 추적추적 내리는 비와 함께 대둔산 자락과 참가자들의 마음을 적셨다. 끝으로 한화 분향을 하고 배꽃합창단의 합창으로 1부 행사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권행완 편집국장

이서혜 학생, 이치대첩제 특별상 수상

포기하지 않는 의지! 이치대첩에서 빛나다!



이서혜(진산초6) 학생이 이치대첩제를 기념하는 백일장에서 충청남도 도지사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날 이서혜 학생은 “포기하지 않는 의지! 이치대첩에서 빛나다!”를 낭송했다. “나도 그분들을 본받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키

워 나가야겠다”고 낭송을 마친 자 어느 한 참석자는 가슴이 뭉클하고 울컥하여 눈시울이 뜨거워졌다고 말했다. 진산역사문화 연구회가 주관한 후 어린 학생들에게 역사를 알고 애국심을 키워주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변화가 아닌가 사료된다.

권행완 편집국장

2025年 9月 찬조금 및 임원 회비 납부 내역

<임원 선임> '25.8.18자

권태윤 상임부회장, 상임위원
권충숙 상임위원

<찬 조 금>

[이치대첩 기념제]

추밀공파	1,105,000
추밀공파 연천공 종중	300,000
추밀공파 오현공 종중	500,000
전주완주종친회	200,000

<임원 회비>

이사

권혁철(음성)	300,000
권혁구(음성)	300,000
권민호(산청)	300,000
권태정(서울송파)	300,000

합계 : 3,305,000원
※ 순서는 납부 순입니다.

안동권씨대종회

仲秋佳節

100만 족친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한가위!
덕덕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안동권씨 대종회장 권영창 외 임직원 일동